광양시, 독일 수소도시 견학…생산 기술 협력 기반 확보

최대원 시의회 의장·공무원 등 14명…자동화 생산라인·터빈 기술 등 프라운호퍼 IWES연구소와 자문 협약…수소도시 사업·생산시설 협력

광양시와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유럽 수소 기술 선진국인 독일을 견학하고,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 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최대원 광 양시의회 의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먼저 독일 베를린의 지멘스 에너지를 방문했다. 지멘스 에너지는 기가와트(GW)급 수 전해 공장 및 자동화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최소 3GW까지 생산 규모 확대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연평균 30만t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약 3000만 유로(약 420억원)를 투자한 지멘 스 에너지는 2000㎡ 규모의 수전해 생산 라인을 증 설한 바 있다.

특히, 방문단은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시스템 자동화 생산 라인과 지멘스 에너지 주력사 업 중 하나인 100% 수소로 가동 가능한 산업용 가 스 터빈 기술을 견학했다. 이 기술은 무탄소 청정 발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광양시 관계자와 시의원들은 수전해 방식을 광양시의 친환경 에너 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접목할 수 있을지 열띤 논의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튿날 방문단은 독일 로이나에 위치한 프라운 호퍼 풍력에너지시스템 IWES 연구소(수소 연구소)를 찾아, 야외 테스트 필드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최대 5MW급 수전해 장치 및 수소 분석·정제 시스템을 견학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연구소는 린데(Linde)사와 협력해 수소효율, 수소품질 등을 분석 중이며, 특히 전해 셀의 실험 및 모델기반 분석, 부품부터 스택 수준까지의 실험 을 통해 수소 품질 개선과 저장 효율성 향상에 주력 하고 있다.

특히,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는 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산업 파트너 관계에 있으며, 지난 2021년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물류 체인 최적화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생산 분야, 저장 및 운송 분야, 활용 분야, 소재 연구분야, 안정성 분야 등에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광양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와 광양 수소도시 사업 및 수소 생산시설 자 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최대원 광양 시의회 의장, 얀 벤스케 프라운호퍼 IWES 부소장, 요하네스 회플링거 로이나 수소랩장을 비롯한 관계 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 수소도시 사업 및 수소 생산시설 자문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활용 관련 소재·부품·시스템 개발 및 검사 등 연구개발 협력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수소 가치사슬 기업 육성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협력 및 수소 생산시설 자문 등이 포함됐다.

방문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최대 패시브하우스 단지인 하이델베르크의 반슈타트 (Bahnstadt)를 견학했다. 이 지역은 약 116헥타르 규모로, 버려진 철도와 화물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조성된 곳이다. 현재 약 2500채의 패시브하우스가 들어서 있으며, 주거 시설뿐 아니라업무 시설, 병원, 연구소, 상업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특히, 반슈타트는 모든 건물이 패시브하우스 표준에 따라 지어져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의 에너지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며, 지역난방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또한,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CHP)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를 통해 일반 건축물 대비 약 90%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시는 반슈타트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 도시 전체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이번 독일 선진지 견학 은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광양시는 프라운호퍼 IWES연구소와 광양 수소도시 사업 및 수소 생산시설 자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기홍(왼쪽) 광양시부시장, 요하네스 회플링거 로이나 수소랩장, 최대원(오른쪽)광양시의회의장.

글로벌 수소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 판이 될 것"이라며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체결한 업 무협약의 실현을 위해 KENTECH(한국에너지공 과대학)과 수전해 생산 방식을 함께 검증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역시 "수소도시 구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광양시가 대한민국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 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247억 투입 '청년 정책' 56개 사업 추진

주거비 지원·하우징타운 조성 등 청년들이 살기좋은 도시 '총력'

곡성군이 청년들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보면 조지하다.

올해 '청년과 함께 STEP-UP, 새로운 곡성'이 라는 비전으로 시행되는 청년정책사업은 6개 분야의 56개 사업으로, 2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4일 '2025년 청년정책 시 행계획(안)' 심의를 위한 곡성군 청년정책위원회 를 개최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청년정책 전문가·청년단체·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와 함께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 공약사항 7건을 포함한 14건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247억원 규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Stay(주거 등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비 지원,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 등 39억원 규모로 9개 사업을 추



진하며, 'Together (화합, 청년주도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시민학교 운영, 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 곡성군 청년통계 작성 등 30억원 규모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Equality(건강 및 보육)' 분야는 출생기본 수당 지원 등 46억원 규모로 14개 사업을 추진하 며, 'Practice(일자리 및 창업)' 분야는 가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기본수당 지급 등 8억원 규모로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U-turn(귀농귀촌 및 전입)' 분야는 곡성 청년 U-턴 지원금 등 63억원 규모로 10개 사업을 지원하며, 'Progress(농업 및 6차산업)' 분야는 청년농업인 지원 등 61억원 규모로 4개 사업을 지원한다.

____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탁구·라인댄스·요가…구례 주민 자치프로그램 풍성

토지면 주민자치위, 올 10여 종 운영…수요 반영해 만족도 향상

구례군 토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1분기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운영할 10여 종의 주민 맞춤형 자치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주민자치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확정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탁구·농악·라인 댄스·통기타·요가·생활도예·스마트폰 활용 교육등으로 주민수요가 반영됐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구례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문화·예술·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면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치센 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토지면은 문수골, 피아골 계곡과 섬진강을 품은 23개 마을로 구성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이다. 봄에는 섬진강에서 은어가 뛰놀고, 여름에는 피아골과 문수골 계곡이 피서객들로 붐빈다. 가을에는 삼홍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겨울에는 왕시루봉의 설경이 사진작가들의 발길을 이끄는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1968년도에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 운조루는 현재 63칸이 보존되어 있으며, 타인능해(他人能解)정신을 담은 쌀 나눔 뒤주로도 유명하다.

지난 한 해 운조루, 연곡사, 피아골 등 토지면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방문한 인원은 약 17만 7000 명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2020~2024년) 토지 면에 귀농·귀촌한 인구는 462명으로 구례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토지면은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과 정주 인구를 늘려가며, '인생 유학 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혜원 토지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 인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연말에는 '주민자 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한 해 동안 배운 실력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하 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민원서비스 개선' 군민 의견수렴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접속

고흥군이 오는 3월 14일까지 3주간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군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의견수렴은 군민이 민원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제안할 기 회를 제공하고, 고흥군 민원제도의 효율성과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고흥군)'에 접속해 민원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 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 제공,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실 내 ▲ 혈압측정기, 신장 측정기, 발 마사지기 등 건강관리 코너 ▲큰 글자 책 비치 어르신 쉼터 ▲영유아용 도서, 장난감 등 어린이놀이방 ▲민원인 열린 공간인 운주당 운영 ▲민원인 전용 PC·팩스·프린터기 전자민원센터 마련 등 민원 편의공간을 개선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소중한 의견이 민원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여수 대표 맛집' 도전하세요

세계섬박람회 지정음식점 100곳 모집…다음달 21일까지

여수시가 다음 달 21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 람회 지정음식점' 100곳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산물, 여수 대표 음식 (10미) 등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취급하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하고 입식 테이블 설치, 해충방제 등 영업장 환경을 갖

이와 함께 섬 지역 소재, 섬박람회 입장권 소지 자 할인 혜택 제공, 공공배달앱(먹깨비) 가입 업 소에는 가산점이 적용된다.

시는 59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음식점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한 후 이행 여부 를 확인해 10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위생과(061-659-423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위해 사고를 예방해 관람객에 게 위생적이고 만족감 높은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들 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업동 호수공원 맨발걷기길.

순천 곳곳 맨발길 걸으며 자연 속 힐링~

향림공원 등 26개소에 조성…배수 관리 · 민원 등 수시 점검

순천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 속 힐링을 돕기 위해 조성된 맨발걷기길에 대해 체계적인 관 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시는 향림공원·지봉로 완충녹지대 등 공원 ·녹지대 내에 맨발걷기길 26개소(총 연장 11.4 km)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맨발걷기길의 위치,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점검 반을 편성했다.

권역별 점검반은 맨발걷기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민원, 호우 발생 시 수시 점검하는 등 시민 만족도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운영된

디

점검내용으로는 토사 유실 등 맨발걷기길 훼손 여부, 배수시설 상태, 토사 내 위험물질 여부 파악 등이며, 점검반은 이상 발생시 즉각 총력을 기울 여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걷기 좋 은 보행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 흙 내음과 녹음을 느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맨발걷기길의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